

##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 정도의 비교 연구

이 기 학 한 종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차이, 학년 차이(1학년 대 2학년), 계열별 차이(인문계 대 실업계)에 따른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측정하였다. 진로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진로태도를 크게 결정성 차원, 현실성 차원, 준비성 차원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진로태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높은 진로태도 점수를 보이고 있다. 결정성 차원에서는 성차이, 계열별 차이, 성\*계열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정성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인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의 준비성 차원에서는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고 실업계 학생보다는 인문계 학생이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 차원에서는 3가지의 주효과와 성\*계열의 상호작용 효과를 모두 보이고 있다. 한편, 3가지 차원을 비교한 결과, 준비성 차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직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현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진로 지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기술문명 발달의 고속화, 가치관의 변화,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찾는 데 매우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 세계의 전망에 대해 불

확실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매우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근, 1988).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태도의 성향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일인당 국민 소득이 약 80배 가량 증대되었으며 세계 무역량도 과거보다는 매우 증가하였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물질적 풍요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각 개인이나 집단은 삶의 만족을 양적인데서 느끼기보다는 질적인 기준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무엇을 이용하여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인지를 생각함으로써 직무를 통한 자아 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직업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전에 있었던 직업이 오늘날에 와서는 사라진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없었으나 새로 생겨난 직업도 매우 많아져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과거보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많아졌고 이와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개인이 삶의 만족을 기반으로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가정생활,

여가, 주거환경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핵심이 되는 것의 하나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에 대해 개인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잘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이 개인이 직업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며, 이런 가치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직업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직업에 대한 지식 및 기대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로 태도에 대한 성숙 정도와 직업에 대한 흥미가 서로 다를 수 있다(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자신에게 맞는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흥미 및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및 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숙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능력과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학교의 진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 속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싶어하며 요구하는 진로의 방향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김충기, 1989,1991; 장석민 외, 1991).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직업적 태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이

런 요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저마다의 능력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도하는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느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 및 진로란 개인의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속성때문에 직업과 교육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밀접해지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에 궁극적인 교육 목적으로 삼아 대학 입학을 위한 교과목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깊은 고찰과 평가를 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문제를 방치한 상태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그 이후에 직업 세계에 아무런 준비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진로 교육의 현실이다.

모든 인간 행동과 마찬가지로 직업 및 진로 발달은 개인의 내적인 가치관 및 능력과 사회적·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조화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복잡한 과정으로서(Super, 1957), 개인적 가치와 성격 유형, 환경적 변인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성별, 학년 그리고 교육과정에 의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로는 다양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진로란 개인의 인생 전단계-직업을 갖기 이전,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동안, 직업에서 은퇴

한 후의 생활-동안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지위로서, 이 지위가 어느 한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 과정동안 발달하는 하나의 연속적인 계열을 의미한다(Pavlak, 1981). 또한, 전생애 발달 과정상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직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진로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Fouad, 1988).

진로태도 성숙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주로 이루어진 진로 태도 성숙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진로 태도 성숙에 대한 개념을 어느 한 순간에 결정되고 다음 단계와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단계에 걸친 하나의 연속선 상에 있는 개념으로 보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정채기, 1995). 즉, 발달적 관점속에서 진로 태도 성숙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로 태도 성숙이 어느 한 시점에서의 성숙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 전단계에 걸쳐 어떤 생애 과정을 거쳤고, 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 하였으며 그 문제에 대한 적응, 해결과정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평가하였다(Super, 1957).

진로 태도 성숙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직업 선택과 직업 활동을 전생애 과정의 맥락내에서 이해하려는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성장, 탐색, 확정, 유지, 쇠퇴의 5 단계를 거침으로서 직업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개인은 각 단계에서 특정한 직업적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다(Super, 1957).

진로 발달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장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관찰과 구체적인 직업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탐색의 과정이다. 청소년기는 직업 선택에 대한 방향성의 설정,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과 계획 수립, 직업 선호에 대한 일관성 등의 특징을 갖는 시기이다. 즉, 앞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이다(Crites, 1965, 1978b).

결론적으로 진로발달이론가들에 의하면, 진로 선택이라는 것은 일회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청소년 시기가 진로 태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개인적 진로의사결정과 계획에 있어서 체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김충기, 1991).

청소년의 진로 태도 성숙을 평가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학년 그리고 교과 과정에 따라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현옥, 1989; 정순이, 1989; Fouad, 1988; Osipow, 1983; Pavlak, 1981).

Ginzberg, Ginsberg, Axelrad, & Herma(1951)와 Super(1957)에 의해 여성에 대한 진로발달 연구가 제기되면서 남녀에 따른 진로 태도 성숙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Ginzberg와 그의 동료들(1951)의 직업태도 파라다임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직업태도 수준을 고려하는데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여학생의 경우는 직업태도에 있어 직업에 대한 가치가 지배적인 기초가 되는 반면에, 남학생은 흥미가 직업 태도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되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직업적으로 성숙되어 있다(O'Hara, 1962). 또한 Crites의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에 대한 진로 성숙 정도를 살펴 본 이기학(199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Achebe, 1982; Alvi & Khan, 1983; Watson & Van Aarde, 1986; Westbrook, Cutts, Madison, & Arcia, 1980).

진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주요 변인으로는 개인이 이수한 교과과정을 들 수 있다. 학교는 사회화와 직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rites, 1971).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일 뿐 만 아니라 진로 태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직/간접적으로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진로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많은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의사결정은 대부분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관계가 된다(Pavlak, 1981).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서로 다르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직업세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직업 및 직무에 필요한 이론적 지지보다는 실제적인 기술 습득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및 자격에 대한 준비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이론적 지지와 기술 습득은 이차적인 목표이며, 직접적인 목표가 대학 입학이 되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에서 진로 태도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를 뿐 만 아니라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Bathory(1967)와 Crites(1971)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기술적-직업적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학술적-학문적 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 더 낮은 직업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Jordaan과 Heyde(1979)는 비록 학생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과과정 선택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사전 직업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과정에 따른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서의 차이 여부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직업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생(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진로태도에서 낮은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다(이기학, 1992; Herr & Enderlein, 1976; Holloway, 1967). Crites(1971)는 직업 관련 교육을 선택한 20명의 학생과 대학 입학 교육과정을 선택한 62명의 학생을 비교한 결과, 이들 두 집단 사이에서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 입학 준비 교육을 선택한 집단(인문계 고등학교)이 직업 관련 교육을 선택한 집단(실업계 고등학교)보다 평균 4점 정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남녀 1-2학년의 진로 선택 및 진로 결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태도에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갖고 있는 하위 태도 요인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서 남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셋째,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서 학년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 방법 및 검사 도구

###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지방에 거주하는 남녀 학생 21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사 대상자를 계열별에 따라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생 1027명(47.8%), 실업계 고등학생 1121명(52.2%)이다. 또한 남학생이 전체의 35.1%(753명)이며 여학생이 64.9%(1395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학년 분포는 1학년 1152명과 2학년 99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1,2학년 학생은 학년 말에 조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실제로는 2학년과 3학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의 분표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전체		인문계 고교		실업계 고교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자	756	390	363	239	221	151	142
여자	1,395	762	633	343	224	419	409
전체	2,148	1,152	996	582	445	570	551

## 검사 도구

우리나라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3가지 하위 영역의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로태도성숙도 측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진로 태도에 대한 3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 결과에는 공통 분산뿐 만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을 나타내는 고유 분산이 상당한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을 택하였으며 다중상관계수치를 공통분의 추정치로 사용하여 주축분해를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고유치의 값이 1.00 이상인 요인이 3개로 구성되어졌으며, 요인 3개에 대한 누적 분산 비율이 84.6%이며 요인을 3개 취했을 때 설명되는 공통 분산은 약 4.96이 된다.

진로태도성숙도 측정을 위한 39문항의 요인 분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에는 현실성 차원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13문항, 요인 2에는 결정성 차원으로 정

의내릴 수 있는 13문항, 그리고 요인 3에는 준비성 차원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차원은 최저 13점부터 최고 26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일 수 있으며, 진로 태도 총점은 최저 39점에서 78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현실성 차원은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측면-능력, 적성, 흥미 등-과 상황적인 측면-가정배경,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얼마나 고려하는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정성 차원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여러가지 요소-흥미, 적성, 능력, 사회적 요소 등-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가 얼마나 확고한가하는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준비성 차원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표 2. 진로태도성숙도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별  
요인분석

문항번호	현실성	결정성	준비성
31	.6868	-.1445	-.0003
18	.5832	.0570	.0192
36	.5676	-.0924	-.0878
20	.5244	.0289	.1059
37	.5137	.0801	-.0881
39	.4359	.0432	.2007
30	-.4248	-.1639	.1765
38	.3535	.0526	.2455
21	.3356	.2583	.1143
4	.2740	.0896	-.0249
19	.2530	.1118	-.0912
29	.2474	-.0447	.1090
3	.2445	.1422	-.1042
1	-.0555	.6457	-.0150
32	.1442	.6409	.0688
8	.1103	.5726	-.1386
35	.0990	.5669	-.0273
34	.0243	.5178	.0593
6	.1886	.4220	-.0924
7	.1443	.4218	-.1123
5	.0555	.4083	.0612
17	-.0199	.3683	.0837
14	-.0168	.3298	.1843
28	.0791	.3202	-.0224
12	-.0347	.3162	.0479
11	.0028	-.3039	-.1199
25	.1937	.0502	.6169
16	.1632	.0043	.5163
24	.1732	.0888	.4818
22	.1323	.0224	.4652
9	-.0863	.0108	.4260
10	-.0001	.0433	.3996
23	.1401	.1380	.3668
2	.1023	.0598	-.3506
13	-.0851	.0289	.3429
33	.0040	-.0768	.3234
26	-.1391	-.0430	.3103
27	-.0192	.0214	.2731
15	.1178	.1197	.2625
고 유 값	2.34862	1.43532	1.17863
분산비율	40.0	24.5	20.1
누적분산비율	40.0	64.5	84.6

진로태도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3가

지 하위 요인내에 있는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평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성별 및 계열별에 의한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하위 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요 인	전 체	남 자	여 자	인문고교	실업고교
전 체	.85	.86	.83	.86	.82
현실성	.77	.77	.74	.76	.76
결정성	.70	.69	.70	.78	.66
준비성	.68	.68	.61	.65	.63

전체적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살펴 보면, 현실성 차원이 .77, 결정성 차원이 .70, 그리고 준비성 차원이 .68로 양호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 및 계열별로 구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살펴본 결과도 .63에서부터 .86까지 양호한 정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각 하위 요인별 상호상관계수를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3개의 하위 요인이 전체 태도 점수와 중간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55 - .76)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각 요인간의 상관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13 - .24)으로 나타나 3개의 요인 구분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진로태도성숙도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간  
상호상관계수

요 인	전 체	현실성	결정성	준비성
현실성	.76	1.00		
결정성	.75	.24	1.00	
준비성	.55	.16	.13	1.00

## 결 과

표 5에 계열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측정 도구의 하위 영역과 총 태도 점수에 대한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준비성 차원 ( $F(2,1132)=3.94, p<.05$ )과 현실성 차원 ( $F(2,1132)=4.48, p<.05$ )에서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진로태도 총점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차원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택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어서 미리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놓는 일과 같은 준비성 차원에서 가장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태도의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결정성 차원에서는 성차이에 의한 주효과 ( $F(1,2146)=3.87, p<.05$ ), 계열별에 의한 주효과 ( $F(1,2146)=47.37, p<.001$ ), 그리고 성과 계열별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 $F(1,2144)=7.59,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결정성 수준에서 남학생 ( $M=20.59, SD=2.33$ )이 여학생 ( $M=20.38, SD=2.39$ )보다

표 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결정성	준비성	현실성	총 점
인문계고교				
1학년	20.80(2.43)	24.31(1.14)	20.57(2.34)	65.68(4.10)
남	20.75(2.37)	24.10(1.29)	20.30(2.39)	65.15(4.07)
녀	20.83(2.48)	24.45(1.00)	20.76(2.29)	66.04(4.08)
2학년	20.84(2.48)	24.26(1.17)	20.23(2.38)	65.32(4.27)
남	20.66(2.52)	23.95(1.36)	19.86(2.31)	64.46(4.32)
녀	21.02(2.44)	24.56(.86)	20.59(2.39)	66.18(4.06)
실업계고교				
1학년	20.05(2.28)	23.98(1.41)	19.69(2.48)	63.72(4.23)
남	20.26(2.14)	23.50(1.64)	18.49(2.28)	62.26(3.88)
녀	20.13(2.41)	24.15(1.27)	19.97(2.32)	64.25(4.23)
2학년	20.20(2.21)	24.14(1.31)	19.63(2.45)	63.96(3.97)
남	20.56(2.15)	23.52(1.74)	18.62(2.41)	62.70(4.19)
녀	20.06(2.22)	24.35(1.04)	19.98(2.37)	64.39(3.79)

진로태도에 대한 3가지 하위 영역 중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준비성, 결정성, 현실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정도의 결정성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을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 ( $M=20.82, SD=2.46$ )이 실업계 학생 ( $M=20.12, SD=2.25$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



표 6. 성별, 계열별에 의한 진로태도성숙도의  
변량분석표

	자유도	자승합	F	p값
결정성 차원				
성	1	21.80	3.87	.049
계열	1	261.35	47.37	.001
학년	1	1.50	.27	ns
성*계열	1	41.76	7.59	.006
성*학년	1	.03	.01	ns
계열*학년	1	1.33	.24	ns
준비성 차원				
성	1	133.12	85.62	.001
계열	1	28.37	17.69	.001
학년	1	1.12	.69	ns
성*계열	1	8.49	5.57	.018
성*학년	1	6.67	4.29	.038
계열*학년	1	6.07	3.79	.052
현실성 차원				
성	1	331.99	56.91	.001
계열	1	309.34	52.93	.001
학년	1	30.69	5.14	.05
성*계열	1	93.66	16.79	.001
성*학년	1	.03	.01	ns
계열*학년	1	10.43	1.79	ns
진로태도총점				
성	1	629.47	35.91	.001
계열	1	1527.31	89.26	.001
학년	1	10.61	.60	ns
성*계열	1	33.57	2.26	ns
성*학년	1	6.56	.37	ns
계열*학년	1	46.84	2.74	ns

준의 결정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준비성 차원에서는 성차이( $F(1,2146)=85.62$ ,  $p<.001$ ) 및 계열별에 의한 주효과( $F(1, 2146)=17.69$ ,  $p<.001$ )와 성과 계열별에 의한 상호작용( $F(1,2144)=5.57$ ,  $P<.05$ ), 성과 학년에 의한 상호작용( $F(1,2144)=4.29$ ,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계열별과 학년에 의한 상호작용에서는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 $M=23.83$ ,  $SD=1.50$ )보다는 여학생( $M=24.35$ ,  $SD=1.09$ )이

준비성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계 학생( $M=24.06$ ,  $SD=1.36$ )보다는 인문계 학생( $M=24.29$ ,  $SD=1.15$ )이 통계적으로 높은 준비성정도 정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성 차원에서는 성차이에 의한 주효과( $F(1,2146)=51.91$ ,  $p<.001$ ), 학년차이에 의한 주효과( $F(1,2146)=5.14$ ,  $p<.05$ ), 계열별에 의한 주효과( $F(1,2146)=89.26$ ,  $p<.001$ )와 성차이와 계열별에 의한 상호작용( $F(1,2144)=16.79$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 $M=20.31$ ,  $SD=2.39$ )이 남학생( $M=19.49$ ,  $SD=2.47$ )보다 현실성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보이며, 인문계 학생( $M=20.42$ ,  $SD=2.36$ )이 실업계 학생( $M=19.66$ ,  $SD=2.47$ )보다 현실성 차원에서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1학년 학생( $M=20.14$ ,  $SD=2.45$ )이 2학년 학생( $M=19.90$ ,  $SD=2.44$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총점에서는 성차이에 의한 주효과( $F(1,2146)=35.91$ ,  $p<.001$ )와 계열별에 의한 주효과( $F(1,2146)=89.26$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여학생( $M=65.04$ ,  $SD=4.13$ )이 남학생( $M=63.91$ ,  $SD=4.29$ )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 성숙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 $M=65.52$ ,  $SD=4.18$ )이 실업계 고등학생( $M=63.84$ ,  $SD=4.1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3가지 연구 목적에 대해 부분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다.

진로 태도 성숙 정도와 진로태도의 하위 영역 모두에 대해 계열별에 따른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첫번째 연구 목적인 계열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주제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전 연구결과(이기학, 1992; Crites, 1971; Jordaan & Heyde, 1979; Moracco, 1976)들과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보인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여 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에 비해 더욱 빠른 시기에 직업 세계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낮은 진로태도성숙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연구 주제인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서의 남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녀에서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진로태도 성숙도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인다. 이는 이전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김현옥, 1989; Alvi & Khan, 1983; Omvig & Thomas, 1977; Watson과 Van Aarde, 1986; Westbrook, Cutts, Madison, & Arcia, 1980).

위의 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준비성과 현실성 차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보인 반면에, 결정성 차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일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인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정확히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 사항은 비록 없지만, 무엇을 하던지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 과정이 남학생보다는 더욱 잘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더욱 현실적인 목적을 갖고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 연구 주제인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서의 학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현실성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현실성 차원에서만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높은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태도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Fouad, 1988)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문계 및 실업계 남녀 고등학생들은 진로태도의 하위 영역 중 준비성 차원에서 가장 높은 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획하는데 있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영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결과를 통해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 및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는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요소이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충기(1989).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박영사.
- 김충기(1991). 미래사회와 진로. 서울:배영사.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1992). 개인적 특성이 직업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근(1988). 진로교육이 실제. 서울:성원사.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교육개발원.
- 정순이(1989).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채기(1995). 진로발달 측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4, 127-145.
- Achebe, C. C.(1982). Assessing the vocational maturity of students in the East Central State of Niger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153-161.
- Alvi, S. A., & Khan, S. B.(1983). An investigation into the construct validity of Crites' career maturity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74-181.
- Bathory, M. J.(1967).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vocational maturity. *Paper presented at meeting of the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Cleveland, Ohio, December.
- Crites, J. O.(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APGA, Inquiry Series*, 2, Washington, D.C.
- Fouad, N. A.(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49-59.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ad, S., & Herma, J. R.(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 Herr, E. L., & Enderlein, T. E.(1976). Vocational maturity: The effects of school, grade, curriculum and sex.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 227-238.
- Holloway, L. D.(1967). *An in-depth study of the cooperative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Champaign Central High School, Champaign, Illinoi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 Jordaan, J. P., & Heyde, M. B.(1979). *Vocational maturity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Morocco, J. C.(1976). Vocational maturity of Arab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 367-373.
- O'Hara, R. P.(1962). The roots of careers. *Elementary School Journal*, 62, 277-280.
- Omvig, C. P., & Thonas, E. G.(1977).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ducation, sex, and career maturity of sixth and eighth grade pupi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 322-331.
- Osipow, S. H.(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Pavlak, M. F.(1981). Student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attitude maturity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Watson, M. B., & Van Aarde, J. A.(1986). Attitudinal career maturity of South African colored high school pupi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7-16.
- Westbrook, B. W., Cutts, C. C., Madison, S. S., & Arcia, M.(1980). The validity of the Crites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49-281.

#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Comparison Research according to High School Students' Gender Differences and Curricular

Lee Ki Hak and Han Jong Chu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Specifically, we measured the differences in the career maturity between sex, among the grade level, and between the curricular. The career attitude scale consists of total score and the following subscale score: Decisiveness, Reality, Prepare. Gener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eems that female tend to score higher on measures of career maturity than male.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o score higher tha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The score of the Decisiveness subscale showed significant main effects for sex, curricular and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ex and curricular. But, this result seems to be against the previous studies. The Prepare subscale was th second subscal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second subscale seems to be sup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Female tend to score higher than male, and academic school students to be showed higher than vocational school students. Ther results of the Reality subscale showed significant main effects for sex, curricular, and grade. Ther also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ex and curricular. Among three subscale, the score of Prepare subscale was to score the higher than others.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students show high interests in their career however, in reality one must consider if such desire can be fulfilled through current education system and one must understand the need for specific and systematical career guidance.

## 부 록

1. 나는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
3.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몇 개의 진로를 생각해 보고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4.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린 시절에 가졌던 계획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을 할 것인지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를 이미 결정해 놓았다.
6. 앞으로 갖고자 하는 직업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지 걱정이다.
7. 내 주위 사람마다 나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해주기 때문에 직업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혼란스럽다.
8. 직업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9.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10.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11. 15세가 될 때까지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 속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12. 먼저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나서 어떻게 취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3. 직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다.
14. 직업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변하더라도 직업 준비는 미리 해두어야 한다.
15.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16. 학교를 다니는 중에 앞으로 선택할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앞된다.
17. 사람들은 노력하기만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18. 직업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19.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가보다 어떤 직업을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20.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21. 일은 고된 것이다.
22.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먹고 살 뉘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23.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4. 진로 선택은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게 마련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25.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 선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26. 앞으로 갖고자하는 직업에 대해 약간의 의심이라도 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27. 자신의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28. 진로 선택이란 내 인생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29.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갖고자 한다.
30. 근무시간도 짧고 작업환경도 좋은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
31. 직업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직업이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32. 앞으로 되고자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주 상상해 보는 편이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갖어야겠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
33.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몇 가지 다른 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34.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35. 내가 세운 진로계획이 현실적으로 잘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36. 앞으로 자신을 더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37. 봉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원한다.
38.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9. 비록 나와는 잘 어울리지 않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